음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식물과 사회**

**비디오 감상문 – 나무를 심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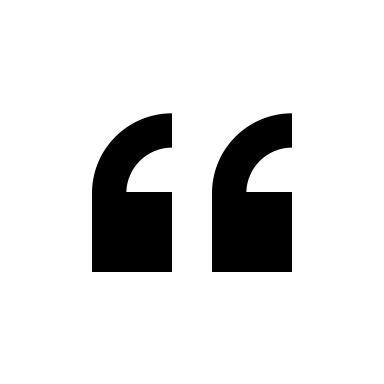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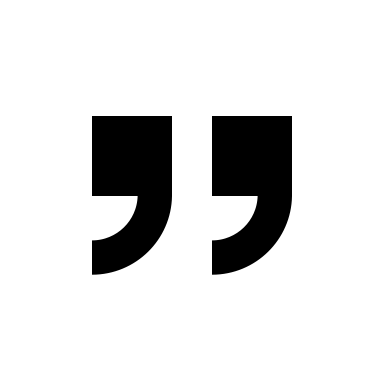
**­­소프트웨어학부**

**20152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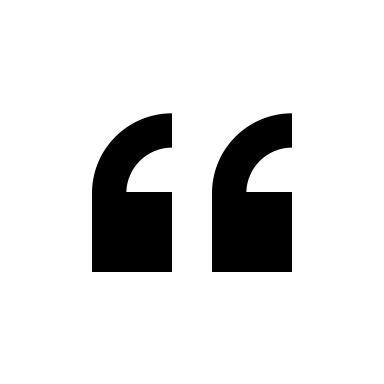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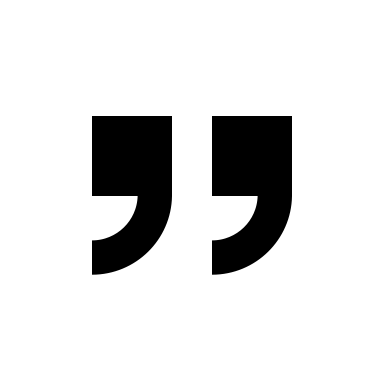
**강길웅**

# 인용 부호 열기나비효과닫힌 따옴표

**“ *나비효과* ”**,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1]](#footnote-1)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는 행위, 값 일지라도 먼 미래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초래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은 사람의 행동은 큰 의미가 없어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미 황무지로 변한 지역이 다시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되기에는 아주 오랜 자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설령 가능 할 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제아르 부피에는* 이러한 현실과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나무를 심을 뿐이였습니다. 그런 그의 고집은 결국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오도록 하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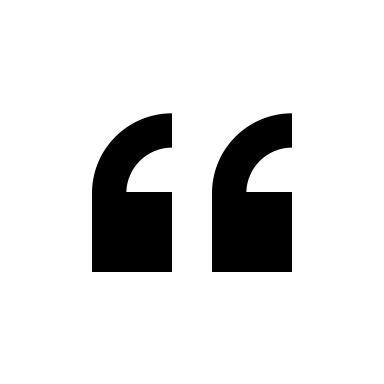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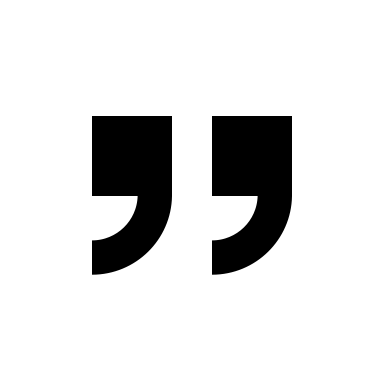
**불굴의 정신과 노력**

큰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엘제아르 부피에의 행위는 매우 작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위는 세상을 바꿀만큼의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나무를 심는다는 그 하나의 행위에 그는 남은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양을 팔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일 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일을 위해 불굴의 정신으로 절망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 역경을 이겨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10만 개의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트는 씨앗은 드물며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신의 섭리로 인해 1/10 정도만 살아남고 이것마저도 온전히 자란다는 확신이 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작지만 큰 일**

비단 나무를 심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세상의 큰 사건과 흔히 말하는 혁신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되었고 그 작은 일들에 인생을 전부 바칠 정도로 불굴의 정신을 쏟으며 노력을 기울여 많은 일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분야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들도 유사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부에 많은 메소드(행위)가 존재하며 그 메소드에는 아주 작은 코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코드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들이 모여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죠, 한 음이 모여 마디가, 마디가 모여 악장이, 악장이 모여 악보를 이루고 악보를 연주하는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웅장한 음악을 탄생시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인 엘제아르 부피에의 이야기에서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섭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쉽게 지나치면서 큰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해야할 일들을 저울질 하며 합리화 하고 지금까지 해본 일만, 편한 일만 추구하며 도전하기를 꺼려하죠. 그러면서도 작은 일은 무시하며 외면합니다. 나무를 심지 않으면서 숲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라는 숲을 가꾸기 위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되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면합니다. 작은 일의 시작과 그 일들은 위한 부단한 노력, 지속하려는 굳은 의지가 큰 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엘자아르 부피에는 본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양들이 잔가지와 새싹까지 먹어치우는 통에 나무를 심기 어려워지자 양들을 팔아치우고 식물의 수분에 도움이 되는 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나무를 심는 일을 하는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관리도 해야하며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다른 노력들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의 시작, 그리고 작은 일을 이루기 위한 환경의 조성과 작을 일을 지속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쌓여 큰 일을 이루고 이는 자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를 심은 사람’을 보며 우리들의 일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문헌

나무를 심은 사람(1987),더빙,https://www.youtube.com/watch?v=gx5He0CsnAE&feature=youtu.be

나비효과(2020),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나비\_효과

나무를 심은 사람(2020), 나무위키, https://namu.wiki/w/나무를%20심은%20사람

1. 위키피디아(2020), 나비효과, https://ko.wikipedia.org/wiki/나비\_효과 [↑](#footnote-ref-1)